

뉴스제휴평가위원회 4기 출범,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검색 알고리즘 공개하고, 아웃링크 전환해야



지난 3월 15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방송협회 추천을 받은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디지털뉴스주간을 4기 제평위 심의위원장에 선출했다. 임장원 신임 심의위원장은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입점소위원장(1소위)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이을 변호사를,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제재소위원장(2소위)에 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을 받은 김상규 더팩트 대표를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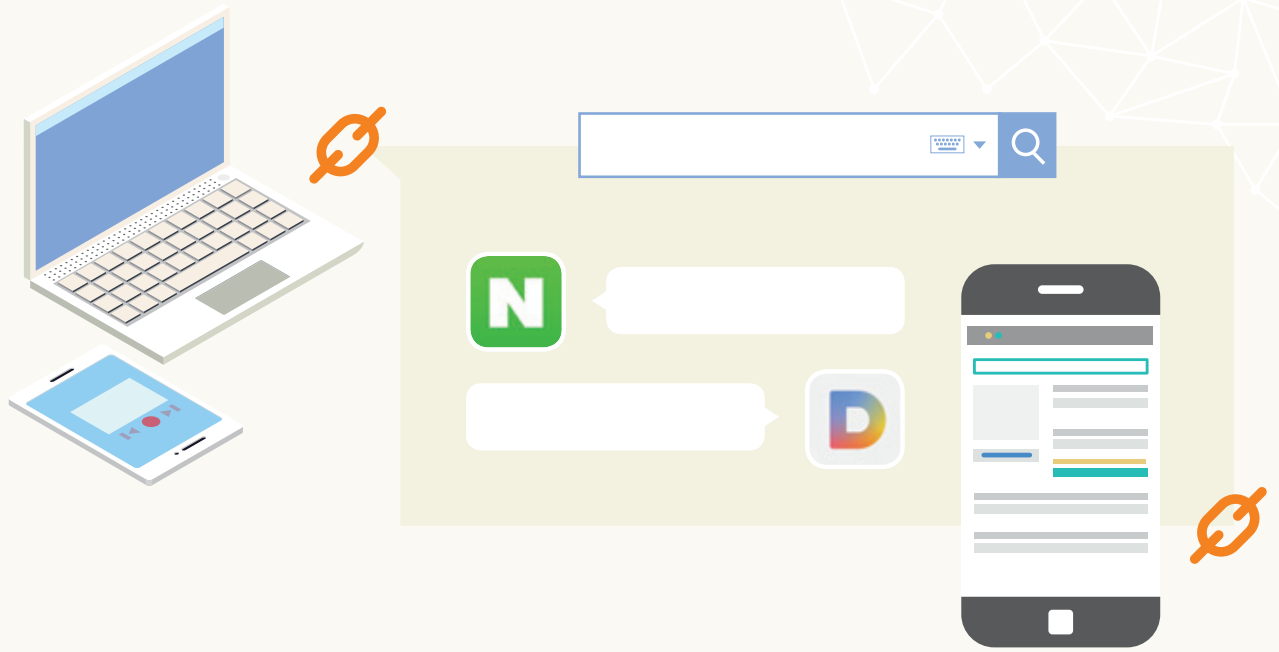
제평위는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위원 2명씩을 추천해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참여한다.

제평위 활동 투명하게 공개해야

2015년 10월에 출범해 4기를 맞은 제평위가 역할과 위

상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러 뉴스이용행태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국민의 뉴스 소비 대부분이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널리즘에 입각한 정보와 뉴스가 유통될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평위부터 베일을 벗고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협회보는 3월 6일자 기사를 통해 “제평위의 첫 번째 문제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기존 매체의 기득권을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평위는 출범 이래 위원명단 비공개, 회의내용 비공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도 전혀 없었다. 기자협회보는 “포털 진입은 언론매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구설을 낳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뉴스 플랫폼으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만큼 4기는 운영을 공개하고 전향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제평위에 대한 불신을 깨뜨리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검색 알고리즘 개선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제평위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과 더불어 포털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뉴스 유통의 아웃링크 전환을 이루는 것도 시급하다. 언론 학계와 광고·미디어 업계에서는 뉴스 기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트래픽(Traffic) 위주의 포털 뉴스생태계 속에서 일부 매체들은 여전히 표절 및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인공지능 알고리즘(AiRS) 전면 도입 등 개선의 노력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포털이 직접 뉴스를 필터링하면 뉴스 배열이 오히려 더 편향될 수 있고, 배열문제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포털이 뉴스 노출 및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Google)의 경우, 언론사의 기사 생산량, 언론사 뉴스룸 크기, 언론사 지국 수, 실명 인용보도 수 등 뉴스배열 알고리즘 항목을 공개하며, 신뢰도 높은 매체가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뉴스 유통 인링크가 아닌 아웃링크로 개편해야

포털이 아직까지 인링크(포털 내부에서 기사 표출) 방

식을 고수하는 것은 이를 포기할 경우 오게 될 트래픽 감소와 광고매출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저널리즘복원 특별위원회’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 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사 링크(아웃링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뉴스를 포털을 통해 보여주고 댓글도 달게 하는 현재의 인링크 방식이 지속될 경우, 미디어 산업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은 뉴스 연성화를 부추겨 저널리즘과 언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주요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한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은 뉴스 및 언론의 신뢰도를 높여 언론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당면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포털을 통해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표절이나 뉴스 어뷰징, 가짜뉴스처럼 뉴스의 품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기사로 광고를 압박하는 유사언론행위나 인터넷신문에 대한 불신, 클릭 경쟁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선진적인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4기 제평위와 포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K A A** 이수지 susie@kaa.or.kr